곡성군 "모든 마을회관 무료 와이파이 빵빵"

270개 마을회관에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통신료 걱정없이 인터넷 사용"

곡성군이 모든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지난 1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곡성군은 다양한 목적으로 무료 와이파이존을 확대해왔다. 먼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섬진강기차마을 등 주요 관광지 16개소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 등 주요 공공장소 20개소에도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였다.

하지만 주민들의 보편적 정보접근과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일상적인 곳에 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270개 마을회관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한 것이다. 대부분 한정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며 주민들이 마음 편히 인터넷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연말까지 주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군내버스와 버스 승강장에 무료 와이파이존 31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누구나 통신료 걱정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을회관에서 마음 편히 유튜브도 보시고, 군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찾아보시기 바란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조사해 공공와이파이를 증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나주시, '나주배 100%' 음료 개발…신제품 4종 이달 출시

슬러시

에이드

요거트

팥빙수

슬러시 · 에이드 등 개발 … 배 소비촉진, 농가 경제 활력 도모

로컬푸드직매장 금남점서 첫 선…시중 판매 위한 상품화 노력

나주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지역 대표 특산물 '배'로 만든 다양한 음료 신제품을 선보인다.

나주시는 '100% 나주배'를 활용한 배 슬러시 · 배 에이드 · 배 팥빙수 · 배 요거트 등 4종의 가공음료 개발에 성공, 2차례 시제품 시식 등을 거쳐 이달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배 음료의 가장 큰 매력은 순수 나주배로 만든 배 퓨레, 배 청과 함께 쌀 · 팥 · 서리태 · 대추 등 기타 원료가 전부 나주산 농산물이라는 점이다.

소비자가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문화 조성은 물론 주로 배즙에 머물러있던 배 가공의 한계를 해소해 농가의 다양한 판로 확보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음료 4종은 로컬푸드직매장 금남점(금나와락) 카페에서 첫 선을 보인다.

이후 소비자 호응도 조사를 통한 보완 · 검증 절차를 거쳐 관내 커피숍과 가공식품 전문업체 등 새로운 판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배 가공음료 개발을 통해 올해 코로나19와 저온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배 농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에 힘써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전국 배 최대 산지로 2019년 기준 전국 배 생산량(20만732톤)의 24%인 4만7952톤을 생산했다.

화순군, 마을로 찾아가는 생생 영농기술교육 운영

화순군이 마을로 찾아가는 여름철 생생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한다.

교육은 마을을 직접 찾아가 영농 애로 사항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순회 교육은 13개 읍 · 면, 65개 마을, 농업인 97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군은 교육을 통해 상반기 영농 상황을 점검하고 벼, 고추, 참깨 등 작물별 대처 요령, 돌발 해충인 먹노린재 방제기술과 적정 시비, 과수화상병 등에 관한 야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지역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을 시행하고, 코로나19 예방 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도 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환경오염행위 6~8월 특별감시 · 단속

구례군은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 · 대기 및 오수 ·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 · 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군은 6월에 사전홍보와 계도를 거쳐, 7월부터 8월 초까지 집중감시 · 단속을 실시한다. 8월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3단계로 추진한다.

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는 시설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 · 상습적 위반사업장에는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 태풍대비 집 주변 위험 나무 90여그루 제거

올해 3천만원 예산 편성…30% 본인 부담

장성군은 올해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개인이 벌목하기 어려운 집 주변 위험 수목 90여 그루를 제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은 태풍이나 강풍 등으로 인해 주택 주변에 생육하는 수목이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2015년부터 재해 위험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 군비를 편성해오고 있으며, 매년 100여 주의 크고 작은 위험목을 제거하고 있다.

위험 수목 제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전년 12월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군은 위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이듬해 상반기에 제거한다.

벌목된 수목은 땔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 신청자에게 인도한다.

사업 신청 가능지역은 크레인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제거 비용의 30%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양완길 장성군 산림편백과장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산림재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더욱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위험목 제거 등 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코로나19 대응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 추진

비대면 마케팅 사업 통해 유통경로 다각화 도모

담양군이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관내 농식품업체와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의 비대면 마케팅 사업을 지원해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경로 다각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희망하는 관내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단체, 농업인, 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오픈마켓 온라인 판촉광고와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상품 동영상 제작, 스토리텔링 등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어려운 농가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우리지역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담양군 농식품 플랫폼 '담양몰'을 구축할 예정으로 지난 12일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이와 연계한 다양한 판매 활성화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농업인과 식품업체에게 온라인 시장은 필수적인 판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